

# 성령 안에 걸으라 (1)

신학박사 조 덕운

*[갈라디아서 5:25]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 1. 성령의 본질과 구약 시대의 사역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님의 영으로 불리는 분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분이며, 성부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분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할이 한 가정의 어머니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역사를 인내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성령님을 거역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교회의 순교자 스테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성령 거역 역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돌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51-53]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구원하시고 70 명의 장로들을 성막 주위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모든 장로들에게 강림하였습니다. 그러자 70 명의 장로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뻗뻗하여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소수의 순종하는 지도자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스테반은 바로 이런 조상들의 행적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25]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 칠십 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모세는 성령님이 자신과 소수의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심으로 모두가 대언자가 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임재를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의 태두리 안에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순종하는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 2. 사울과 다윗의 사례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사례를 통하여 성령 임재를 경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세상의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그분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은 태도를 가졌던 정 반대되는 두 신앙인의 사례를 봅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자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6-7] 또 {주}의 [영]께서 네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런데 사울은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언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세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옳지 못한 본을 여러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번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사울에게 내려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성도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울의 경우에서 교훈을 배워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는 영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14]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청년 다윗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몇년간 온 유대 땅을 쫓아 다녔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을 때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떠나 가실까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10-11]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 회개를 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영을 회복시키는 고마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 임재의 커다란 선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아니되겠습니다.

## 3.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높고 높은 천국에 거하시며,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심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사야 57:15]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모세와 다윗 뿐 아니라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임재의 은사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그러한 성령 임재를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6:27]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요엘 2:28]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리고 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와 예루살렘에 대기하는 심령으로 모여 있던 신약 교회의 신자들 위에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선물이 주어져 왔습니다. 이 이적은 오늘날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1-4]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2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3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4 그들이 다[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에덴 동산 밖에서 그곳과 동일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임재(臨在), 즉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홀로 되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 위로하고 힘 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을 주십니다. 즉, 자신의 영을 그 영혼들의 내부에 거하게 하셔서 함께 숨 쉬고, 함께 걷고, 함께 인생 길을 여행하도록 원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잠언 3 장은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 대신에 ‘성령 임재’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3-20]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잠언 3:14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5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16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17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18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19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20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음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성령 임재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임재를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장수와 심지어는 재물과 명예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16 절)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에 더하여 즐겁게 인생 길을 여행할 수 있고 모든 행로에 화평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니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19 절과 20 절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를 탐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가지셨던 초자연적인 지능 (Supernatural Intelligence)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심오한 지식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참 기독교인이었던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주 과학의 법칙들을 발견하여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매우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매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 편에 계속]